

## 상처 받는 것이 꼭 당연한 것은 아니다

It's Not Necessarily Inevitable to Get Hurt

룻기 2장 14-23절

- 
14.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5.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17.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18.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19.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20.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21.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22.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23.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 

1. 룻이 이삭줍기를 했다는 것은 매우 형편이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가난하지만, 룻은 한때 부유한 집안의 며느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룻1:21).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부자집 며느리에서 이삭줍기를 해야 하는 과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룻이라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룻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이삭을 주우러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3.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성실히' 일했는지 그녀가 일한 '시간'과 '양'을 살펴봅시다. (룻2:7,17)
4. 만약 나에게 동일한 상황이 닥친다면, 룻은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내가 룻으로부터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5. 설교를 듣고 문장 완성하기

- 1) "○○가 있어야 이삭도 주울 수 있다"
  - 2) "믿음은 ○을 잃버렸어도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것이다"
  - 3) "많은 은혜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라는 그물이 필요하다"
  - 4) "○○ 받는 것이 꼭 당연한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이 있기 때문이다"

